

# 부동산규제로 여신급감... 시중銀, 자금조달 줄인다

DTI·DSR·예대출 규제 등 영향  
3월 은행채 만기도래 규모 5.3조  
1인당 평균 대출액 4300만원 줄어

“꼭 막혔다. 외부에서 돈을 빌릴 유인이 크지 않다. 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이 쉽지 않고, 기업들은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

“그동안 앉아서 장사하던 여신이 걱정이 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본연의 자금증대 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다. 기업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돈 장사하는 은행이 하루 아침에 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시중 은행들이 외부 자금 수혈을 줄이고 있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총채적상환능력비율(DSR), 예대출 규제(가계대출 가중치 15% 상향, 기업대출 15% 하향) 등 신규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여신(대출)이 줄자, 영업실적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한·미 금리역전 경계감도 존재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은행채 만기

〈일반은행 원화예대출 현황 및 조정 원화예대출 추정(한국기업평가 추정)〉

(자료: 한국기업평가·신한금융투자 인용)

(단위: 조 원, %)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	씨티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원화대출금	851.3	136.3	229	194.6	191	185.1	32.5	19.1	37.6	34	28.5	18.5	13.3	4.5
기업대출	380.4	86.2	101.3	87.4	92.2	84.4	7.9	7.3	25.5	24	18.4	9	7	2.5
가계대출	457.9	46.8	126.2	104.4	96	95	24.4	11.8	10.6	9.4	9.9	9.1	5.9	1.9
기타대출	13	3.3	1.5	2.9	2.8	5.6	0.2	0	1.5	0.7	0.3	0.3	0.4	0.1
원화예수금	855.9	140.2	228	195.2	190	185.8	35	22	38.3	35.5	29.1	19	13.6	4.7
원화예대출(a)	98.1	96.3	99.1	98.4	98.8	98.4	92.7	86.2	96.3	95.1	97.5	96.8	97.5	94.0
가중치 차등화시 조정 원화예대출(b)	99.6	92.2	100.8	99.8	99.2	99.3	99.8	89.2	90.6	88.9	93.1	96.9	96.2	92.3
변동폭(%)(b-a)	1.4	(4.2)	1.7	1.4	0.4	0.9	7.1	3.0	(5.6)	(6.2)	(4.4)	0.1	(1.2)	(1.7)
예수금조달 필요액	12.4	(6.1)	4.0	2.8	0.8	1.7	2.7	0.8	(2.2)	(2.3)	(1.3)	0.0	(0.2)	(0.1)
가계대출 감축 필요액	(10.6)	5.1	(3.4)	(2.4)	(0.6)	(1.4)	(2.1)	(0.6)	1.9	1.9	1.1	0.0	0.1	0.1

도래 규모는 5조3000억원 규모다. 올해 최저 수준이다.

NH투자증권 최성종 연구원은 “신 DTI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며 대출 성장률이 2017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연 초 이후 은행 내부 여유자금 증가로 발행 수요가 줄어들었다”면서 “다만, 4월 이후 8조원 안팎의 만기 도래 물량이 예정되어 차환을 위한 발행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도 은행들은 만기도래 수준(8조8000억원)에 못미치는 4조8000억원 규모를 발행하는데 그쳤다.

시중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지 않는 이

유가 있다. 당장 대출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 6만6000명을 표본으로 지난해 6·19 대책, 8·2 대책 그리고 신 DTI 도입에 따른 누적 효과를 추정해보니 이들의 34%가 영향을 받았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1억34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도 대출 수요는 한풀 꺾일 전망이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1분기 대출 수요지수 전망치는 -2로 4포인트 떨어졌다. 대출수요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2010년 2분기(-3) 이후 처음이다. 특히 1분기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 전망치는 전 분기 -17에서 -27로 떨어졌다.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가계 대출 수요는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신DTI 도입으로 상당폭 감소할 것”이라며 “신용대출 등 일반자금 대출도 대출금리 상승 탓에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자리한다.

노동관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신 DTI·DSR 등 신규 대출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55조원(추정치)에서 올해 40조원대 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예정된 예대출 규제의 영향도 있다.

지난 1월 22일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예대출 규제가 그 중 하나다. 은행권의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대출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예대출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15% 하향해 적용키로 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유동성 규제 강화에 따른 고유동성자산 매입 목적의 은행채 발행도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시중은행의 2018년도 일괄신고서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8조원, 신한은행은 7조원의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발행액 8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신한은행은 12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6월까지 6조원 규모의 발행신고가 돼 있고 지난해 12월 말까지 3조7000억원 규모의 은행채를 발행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SC제일은행 첫 거래 법인고객 ‘특별금리’ 제공

SC제일은행은 오는 5월 31일까지 첫 거래 중소기업 법인고객을 상대로 자유입출금통장인 ‘다모아비즈통장’에 최대 연 1.3%(이하 세전)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SC제일은행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 법인고객이 다모아비즈통장을 개설하고 1000만 원 이상의 일별 잔액을 유지하면 개설일로부터 3개월간 연 1.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오는 6월 11일 이전에 통장을 해지할 경우 특별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1000만 원 미만의 잔액에 대해서는 연 0.3%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김용남 SC제일은행 수신상품팀 이사



는 “금리 인상과 함께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내외 경제 변수가 많은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법인고객들의 보다 효과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특별금리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 신한은행, KBO리그 예·적금 출시

# “내가 응원하는 구단 승률따라 금리 우대”

신한은행은 2018 한국프로야구의 흥행과 각 구단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한 ‘신한은행 KBO리그 예·적금’을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일인 13일부터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판매한다.

‘신한은행 KBO리그 예·적금’은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고객이 응원하는 구단을 선택해 가입하는 1년제 상품이다. 구단별 상품 가입자 수, 가을야구 진출 성적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특히 고객이 선택한 구단의 정규시즌 최종 승률이 그대로 우대금리에 반영된다.

‘신한은행 KBO리그 적금’은 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기본이자율 연 1.5%와 출시기념 특판금리 연 0.1%포인트(출시일로부터 6월 30일까지 가입고객 대상)를 제공한다.

여기에 고객이 선택한 구단의 ▲승률에 따른 우대금리(2017년 기아타이거즈 정규시즌 승률 6할8리의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연 0.61%포인트 우대) ▲가을야구 진출 성적에 따른 우대금리 최고 연 0.3%포인트 ▲같은 구단 선택 가입 좌수에 따른 우대금리 최고 연 0.5%포인트를 얻어준다.

‘신한은행 KBO리그 정기예금’은 300



신한은행이 ‘KBO리그 예적금’을 13일 프로야구시범경기 개막일부터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판매한다. /신한은행

만원(비대면 가입 시 5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이자율 2.0%에 고객이 선택한 구단의 가을야구 진출 성적에 따라 최고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2.3%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신한은행이 한국프로야구의 메인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프로야구 시즌마다 출시될 예정”이라며 “신한은행은 한국프로야구의 메인 타이틀 스폰서로서 앞으로도 야구와 금융을 접목

한 참신한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프로야구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KBO리그 예적금’ 신규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골드바 10돈(1명) ▲골드바 3돈(10명) ▲프로야구 예매권(구단별 20명, 매월 200명씩 총 600명)을 제공하며 신한은행의 대표 자동차 금융 상품인 ‘신한 MY CAR 대출’ 신규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모바일 주유 상품권(월별 10만원 50명) ▲모바일 치킨 상품권(월별 200명 총 600명)을 제공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KEB하나은행 ‘현악기 컨설팅’ 서비스 시행

KEB하나은행은 프라이빗 뱅커(PB) 특화서비스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현악기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악기 컨설팅 서비스’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현악기 시장의 특성상 가격과 품질의 편차가 심하고 워낙 제한된 정보를 통해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KEB하나은행에서 처음 시도되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본인 또는 자녀, 손녀가 현악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할 예정인 KEB하나은행의 PB 거래 손님이며, 거래하는 영업점 PB(Private Banker)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에게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컨설팅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여기에는 음대 교수, 유명 시립교향악단 악



서울 삼성동 KEB하나은행 Club1 PB센터에서 컨설팅 자문위원단의 복원 제작 전문가가 한 PB 손님이 의뢰한 현악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장 및 수석급 연주자, 악기 전문 딜러, 악기 복원 및 제작 전문가 등 현악기 각 종류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김문호 기자

## KB국민은행 ‘포모사본드’ 발행 성공

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3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변동금리부 포모사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포모사본드는 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 기관이 대만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KB국민은행은 우수한 영업실적과 양호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대만 및 해외 채권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가산금리는 최초 제시 금리의 하단인 78bp

(1bp=0.01%)로 확정됐으며, 이는 지금까지 국내 시중은행이 발행한 5년 만기 포모사본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발행에는 소시에티제네랄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주관사로 참여했으며, 투자자의 구성을 보면 대만 67%, 대만 역외가 33%였다.

/양성미 기자